우암학원 창학67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www.tphtoyota.com
BEYOND POSSIBLE. BEYOND PLEASURE.
SMART HYBRID 4th GENERATION PRIUS
TOYOTA
광주전시장 062-371-8383 | 전주전시장 063-273-3222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832호 1판 (음력 7월 27일) 2018년 9월 6일 목요일

‘현대미술 축제’ 광주비엔날레 대장정 시작

오늘 개막식·프레스 오픈 … 11월11일까지 열려
‘상상된 경계들’ 주제 총 43개국 165명 작가 참여
문화전당·무각사 등 광주 전역 현대미술 현장으로

전 세계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는 ‘현대미술축제’ 2018 광주비엔날레가 6일 개막식과 프레스 오픈을 시작으로 11월11일까지 대장정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16면〉

‘상상된 경계들(Imagined Borders)’을 주제로 총 43개국 165명 작가가 참여하는 올해 비엔날레에서는 지정학, 정치, 경제, 감정, 세대 간 ‘경계’에 대한 이슈를 다채롭게 풀어낸 스타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올해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단일 예술감독 대신 11명의 큐레이터가 7개의 주제전을 선보이는 점이다. 전 세계에서 모여든 역량있는 큐레이터들이 자신들이 초청한 참여작가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주제를 구현해 낼 지 흥미로운 대목이다. 올해는 주제전과 함께 새로운 시도도 펼쳐진다. 광주의 역사성을 반영한 장소특정적 신작 프로젝트 ‘GB커미션’, 팔레 드 도쿄 등 해외 유수 미술기관이 참여한 ‘파빌리온 프로젝트’다.

또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함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전관이 전시장으로 활용되며 옛 국군광주병원, 무각사, 시민회관, 전일빌딩, 5·18 당시 시민군이 사용했던 5·18민주평화기념관 3관(옛 전남도청 회의실)등 광주 전역이 현대미술의 현장으로 변신한다.

클라라 킴 등 11명의 큐레이터가 기획한 7개의 주제전은 광주비엔날레전시실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관객들을 만난다. 비엔날레 5개 전시실에서는 클라라 킴, 그리티야 가위웡, 크리스틴 Y.킴&리타 곤잘레스, 데이비드 테가 기획한 ‘상상된 국가들/모던유토피아’ 등 4개의 섹션을 만날 수 있다.

아시아문화전당 창조원 6개관에서는 정연심&이완 쿤, 김만석&김성우&백종옥, 문범강 큐레이터가 기획한 섹션 ‘지진: 충돌하는 경계들’ 등 3개 주제전이 열린다. 특히 창조원 6관에서 열리는 ‘북한미술:사회주의 사실주의의 패러독스’에는 대형 집체화를 포함해 모두 22점의 작품이 선보일 예정이어서 관심이 높다. 또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옛 전남도청 회의실에서는 505부대 사진을 찍은 염중호를 비롯 백승우·아르나우트 믹 작가의 사회성 짙은 작품을 만날 수 있으며 전일빌딩에는 니나 새넬 애브니의 회화 작품이 내걸린다.

또 ‘GB 커미션’ 참여작가인 아핏찻퐁 위라세타쿤과 마이크 넬슨은 옛 국군병원과 부지내 교회에서 작품을 선보이며, 아드리안 비샤르 로하스와 카데르 아티와도 광주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을 전시한다.

그밖에 파빌리온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프랑스 팔레 드 도쿄는 시민회관에서 전시를 진행하며 헬싱키 국제 아티스트 프로그램은 무각사 로터스갤러리에서, 필리핀 컨템포러리 아트 네트워크는 이강하 미술관과 핫 하우스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개막식은 6일 오후 7시 30분 광주비엔날레 광장에서 펼쳐진다. 개막식에는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이용섭 광주시장, 김선정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이진식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당장, 랄프 루고프 2019베니스비엔날레 감독, 시민 등 15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가수 겸 배우 진영의 홍보대사 위촉식이 열린다. 큐레이터들의 전시 개요 설명에 이어 이이남 특별프로젝트 참여 작가의 미디어 퍼포먼스가 12분 가량 펼쳐질 예정이다.

재단은 전시공간이 광주 전역으로 흩어져 있는 점을 감안 전시 기간 동안 셔틀버스를 운영, 관람객의 편의를 돕는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2018 광주비엔날레 개막을 앞두고 5일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 전시장에 작품 설치가 한창이다. 설치를 맡고 있는 큐레이터들이 레바논 출신 작가 라라 발라디의 작품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특사단, 김정은 위원장 만나 문대통령 친서 전달

오늘 방북 결과 브리핑

평양을 방문한 대북특사단이 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관련기사 3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7시께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면서 “특사단은 지금 만찬을 하는 중이다. 만찬 이후에 평양에서 (서울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특사단이 누구와 만찬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특사단의 오찬에 대해서도 “누구와 했는지 모른다. 다만 김 위원장과 오찬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했는지 특사단에서 보고를 받은 바가 있나’라는 질문에는 “없다”라고 답했고, ‘면담이 잘 됐다고 하나’라는 물음에도 “모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상의 내용이 오늘 밝힐 수 있는 최대치”라며 “방북 결과 브리핑은 내일 진행할 예정이다. 정확한 브리핑 시간은 평양의 상황을 알 수 없어 지금 말씀드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북 특사단은 이날 오전 7시 40분께 서울공항을 출발해 오전 9시께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 이후 고려호텔에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등과 환담을 했다. 김 위원장과의 면담은 이들과의 환담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로 추가 이전 가능 기관

우체국시설관리단·해양환경공단·한국어촌어항협회 등 21개 기관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해양치유 국립 스포츠재활원
국립 섬발전연구 진흥원·국립 순천민속박물관·체육인 교육센터 등
20개 공공기관에 대한 본원 및 분원 이전 추진 중

공공기관 122개 지방 이전 추진
광주시·전남도, 준비 작업 착수

지역균형발전 기준 분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노무현 정부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카드를 다시 꺼내 들면서 광주시와 전남도도 추가 이전에 대응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관련기사 4면〉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당정이 검토중인 추가 지방이전 공공기관 대상은 모두 122개다. 이 가운데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로 추가 이전이 가능한 기관은 우체국시설관리단,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협회 등 21개 정도가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빛가람혁신도시의 경우 에너지와 농·생명, 문화, 정보통신 분야 공공기관이 이미 입주해 있어 관련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이외에도 해양경찰 서부정비창을 비롯한 해양치유 국립 스포츠재활원, 국립 섬발전연구 진흥원, 국립 순천민속박물관, 체육인 교육센터 등 20개 공공기관에 대한 본원 및 분원 이전을 추진중이었다.

해양환경공단과 한국 어촌어항협회를 제외한 18개의 공공기관은 정부 부처에서 새로 설립할 계획이 있거나 검토중인 분원이나 분소 등이다.

전남도가 추진중인 본·분원 유치 대상기관은 조선과 해양 분야 공공기관이 10곳으로 가장 많고, 농수산과 문화체육관광분야가 각각 4건, 건강보건 분야가 2곳 등이다. 이 가운데 10개의 공공기관은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나머지 10개 기관은 유치에 나서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아 경합을 벌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은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관여해 전국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균형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남도는 이미 20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국비 예산 설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건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노무현정부가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고, 지난해까지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153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옮겨갔다. 이 법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했지만, 이명박·박근혜정부는 더이상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사실상 중단된 배경이다.

그러나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며 공공기관 지방이전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일보 창사66주년
광주로 띄우는 그림 편지 -크로아티아에서 김효삼 ▶18면
KIA, 강자에 강하고 약자엔 약하고 -가을잔치 가려면 ‘징크스’ 넘어라 ▶20면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